

체험으로 읽는 미국인의 세상살이

미국의 독특한 문화·교육·사생활 등 파헤친 책들 잇따라

미국은 더 이상 꿈의 나라가 아니다. 세계가 지구촌화하고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져서 얼마든지 만나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마빈 해리스의 문화비평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황금가지)에 드러난 것처럼, 정보화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미국은, 그 이면에는 산업사회가 낳은 지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적은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시각에서 미국 문화를 진단한 이 책들은 일본관련서 열풍에 이은 조류라 할 수 있다.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최근 출간되어 베스트셀러 수위권에 오른 《미국에 관한 진실 77가지》(문예당)는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에서 가정생활·교육·사회, 미국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77가지 내용을 흥미있게 정리한 책이다. 미국인 중백인 중산층에 해당하는 '순종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방식을 심층 취재한 것.

미주리대 저널리즘 스쿨에서 <국제심층보도>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저자 이진씨는 이 책을 위해 3년 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1백여 명이 넘는 백인들과 인터뷰, 그들의 생활을 추적했다. 덕분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사항들이 담겨 있다. 그동안의 미국문화론은 상당수가 여행기와 관찰기였음에 비해 그들 속에 들어가 내면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영웅·동창회·섹스·복권·향기증후군을 앓고 있는 미국, 시테크·파티·에티켓·지적소유권·창고세일·명절에 강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다루었으며, 데이트와 결혼·집안꾸미기·다이어트·돈·교육·컴퓨터 등 세부 항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썼다. 마지막 장 '코리아안 드림'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 영어강사 이야기다. 한국에 만 가면 영어강사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

《미국에 대해 알게 된 두세 가지 것들》(한울)은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보경씨의 미국생활 체험담이다. 미국유학, 국제결혼,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속의 이야

지구촌화한 세계 속에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자

산업사회의 지병을

고스란히 앓고 있는 사회다.

최근 미국사회와 문화를

진단한 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미국의

사회 비평, 진단 보고서

성격을 띤 책들은 당분간

호조를 떨 조짐이다.

기. 한국과 미국의 언어와 관습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일화와 갈등을 예리한 관찰과 재치있는 문체로 펼쳐보이고 있다.

'gook과 국' 'you와 너' '미국인의 호칭 습관'은 언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파랗게 물오르는 잔디, 그 공포' '도심의 황량한 공립학교' '도서관,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은 미국인 주거환경의 양상들과 그 모순, 갈등을 지적한다. '알면서도 못쓰는 답' 'John Doe와 홍길동' '한국유학생, 킨닝도 사라는 누명이 웬말인가?' '국경없는 가족애' 등에서는 한국유학생이 겪는 웃지 못할 여러 경험과 문화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희극같은 에피소드도 해학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그밖에 김무상씨가 쓴 《미국은 가짜다》(넥서스)는 OECD 전문가인 저자가 미국 생활 중에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미국사회 면면을 날카롭게 파헤친 저서이고, 《미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하나의학사) 역시 재미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박태수씨의 26년여의 미국생활을 통해 겪고 느꼈던 미국사회 전반의 허와 실, 한국문화와의 차이를 밝힌 책이다.

최혁순씨의 《이것이 미국이다》(합동국제문화센터출판부)는 신대륙 발견에서 초강대국이 되기까지 미국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 내한 책. 국토와 국민, 산업과 경제, 생활양식, 역사·정치·법률·경제 등을 설명하고 50개 주에 대한 정보, 여러가지 정보를 수록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

했다.

언어는 그 사회를 반영한다. 미국인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다룬 책들도 눈에 띈다. 최근에 나온 《지금, 미국에선 이렇게 말해야 통한다》(황금가지)는 생생한 신세대 영어를 통해 미국의 청소년문화를 보여준다. 미국 10대들의 공동관심사를 엮은 저자 조승연 군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가, 미시간주 오키모스 공립고등학교 2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

미국의 신세대 용어로 본 문화

헤어스타일, 의식주, 생활양식, 문화가 다르지만, 청소년들의 '끼리끼리'의 말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심리는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다. 미국의 10대들은 '쿨(cool)'이 되고 싶어한다. '쿨'은 '썰렁한 아이'가 아니라 '멋쟁이'를 의미한다. '쿨'로 인정받는 아이들은 '새로 만들어진 영어로 말을 하며 험렁한 청바지에 재킷을 입고 고급 승용차에 여자친구를 태워 좋은 식당에 데려가는' 아이이다.

90년대 '쿨'의 생활수칙 제1호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 한국의 10대들이 어설픈 흡연으로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과는 단판으로 미국에서는 담배를 권하는 사람에게 'I'm cool(난 쿨이야)'이라고 말한다. 한국 10대들이 오토바이에 열광하는 반면 만 열여섯살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미국 10대들의 꿈은 멋진 차다. 특히 오픈카인 로드스타(Roadstar)는 '여자 친구들을

끌어당기는 자석(Chick Magnet)'으로 통한다.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친구를 보면 "Nice set of wheels, Man"이라고 부러움을 나타낸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 운터한 부의 세계가 그들의 이상이자 목표인 셈이다.

미국의 10대들은 문법적인 말, 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10대들이 만들어내는 짧고 경쾌한 문장들은 기성세대의 언어에도 파급되었다. '레츠 로큰롤(Let's rock'n roll, 빨리 시작하자)'이나 '슛(Shoot, 계속해)' '레츠 밀(Let's mill, 밥 먹자)' 등이 그것.

또한 지능이가 놀란 것은 '기회 평등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동급생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언어의 차이이다. 미국의 10대들은 생활수준과 인종에 따라 한 학교 안에서도 '프리티 보이즈(pretty boys, 부자집 도련님들)' '스케이터즈(skaters, 가난한 백인아이들)' 등의 그룹으로 나뉘고 그들의 언어생활은 서로 다르다. 가난한 흑인아이들인 '래퍼(rapper)'에 이르면 언어는 거칠기 그지없다. be동사를 인칭에 따라 바꿔쓰지 않을 뿐더러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다. 랩의 가사들은 미국 10대들조차도 고개를 내흔들 정도로 저속한 내용과 독특한 발음을 담고 있다.

이런 다양한 미국문화비평서는 《미국에 관한 77가지 진실》의 호조를 타고 계속 출간될 조짐이다. 문화인류학서의 범주에 들기 보다는 문명진단서 혹은 사회문화보고서류의 책들이 대부분이다. — 마정미 기자